

성도의 빛 5

1976





시작

크리스티 험프리즈

12세의 소년들은 재미있는 일만 찾고 무사안일한 것이 보통이다. 그들의 세계는 결혼이나, 국가나, 그밖의 어른들에게 부여된 책임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결혼을 향한 길을 걷고 있으며, 또한 신권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국가보다도 더 완전한 형태의 조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아론 신권은 클럽과는 다르다. 회원증을 사서 가입하는 단체가 아니다. 아론 신권이란 손으로 짚 수 있

는 증명서가 아니다. 다만 권능있는 자의 안수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이다. 합당한 소년에게만, 그리고 합당한 권능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여성인 나는 신권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정숙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며, 동년배의 소년들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격려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나는 그들이 높은 목표와 이상을 추구하고, 임무를 수행하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다. 그들에게 훌륭한 영향을 줌으로써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아론 신권이 모든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결한 생활, 훌륭한 모범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려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영생으로 향하는 또 한 발자국을 떼어 놓을 수 있는 계단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바라고, 계단의 다른 편에는 정결하고 합당하며 자신의 신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나의 반려자로 서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한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지금 나와 똑같은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란다.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집사에서 교사로, 교사에서 제사로 발전해 나가고 그 후 더 높은 부름인 멜기세덱 신권을 받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아론 신권은 중요하고 신성하며 생동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작인 것이다. *

“순결한 청소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천사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은 지상에 사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대관장단, 1942년 4월 6일)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구원을 받아 하늘의 왕국에 승영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숭고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치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당한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순결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도덕적 순결이란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순결은 인격적 의로움을 대가로 치룰 때 얻어지는 것이며,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갈라디아서 6: 7-8)

도덕적 순결이나 덕성은 종교인들만이 추구해 온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가정, 건전한 사회, 위대한 국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생활의 표준입니다.

도덕적 순결이 가져다 주는 혜택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도덕적 순결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적 고통을 주지도 않게 됩니다. 놀라운 속도로 만연 일로에 있는 사회적 질병으로부터 보호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서로 순결을 지켜 왔다는 것을 알고 신뢰와 존경의 기초 위에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단에 마주 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들은 하

나님께 봉사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땅에 충만한 것”(교성 59: 16)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채닝 플룩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성의 순결과 남성의 고결함을 믿으며 이에 따라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1960년 6월호, 76 페이지)

이러한 세상을 이룩하여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만연된 압력과 유혹에 저항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문제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모든것을 얻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기로 결심한 수많은 청소년이 있습니다. 현대의 계시로 주어진 다음과 같은 귀중한 약속대로 행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 가리라.”(교리와 성약 121: 45-46)

세계 제2차 대전 중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을 염려하여 순결의 법에 관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순결한 생활에서 오는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철저히 순결한 생활을 하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됩니다.

“순결한 생활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생활입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눈부신 한낮의 태양 아래 아무 두려움 없이 걸읍니다. 도덕적으로 떳떳하기 때문입니다. 비열한 중상의 화살도 그를 찌지는 못합니다. 그의 갑옷은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공의로운 자도 그의 덕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 받을 행동을 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뺨은 결코 수치로 붉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읍니다. 비판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읍니다. 흠 없이 서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승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관장단 메시지 1942년 10월 2일) *

집사의 권능

윌리엄 지 하틀리

타 이터스 빌링스, 시린즈 버넷, 존 버크 등이 1830—31년에 회복된 교회의 최초의 집사로 성임된 이래 오늘날까지 몇명의 집사가 교회에서 봉사하였겠습니까? 이는 아마 기록하는 철사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연간 집사 성임 총계 (1854년에는 95명, 1906년에는 18000명, 오늘날 약 150,000명)와 집사로서의 평균 봉사 기간 (2년 내지 3년)에 기초하여 대략 2백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말일에 주님께서 그의 왕국에 봉사할 수많은 집사를 부르신 것은 집사가 맡은 역할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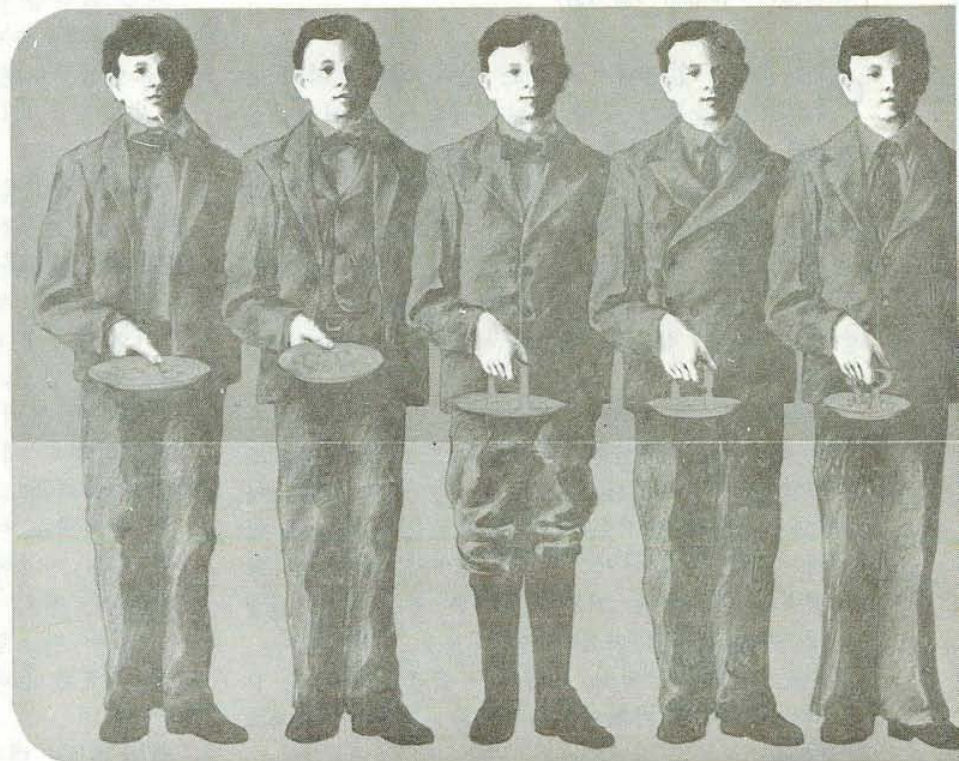
집사로서 봉사하던 시절의 따뜻한 추억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집사의 권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집사로서 봉사하던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 전의 예를 든다면, 영국의 개종자인 존 스미스는 “11살에 회원이 되었고 15살(1851)에 집사에 성임되었는데 이때 그는 전에 느껴 보지 못하던 어떤 권능을 느꼈다”고 회상했습니다. 더 가까운 예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7명의 회장 중의 한 사람인 조지 레이놀즈 장로는 집사로 봉사하던 짧은 기간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부름을 받아 봉사한 일 중에서 저의 최선의 능력을 다하여 전심 전력했던 임무가 있었다면 그것은 집사의 부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참석할 수 있는 모임에는 결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한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예배실을 준비하며 의자를 닦고, 저녁이면 불을 피워놓고 그 밖에 성도들이 모임을 갖는데 필요한 모든 사소한 일들을 정리하곤 했습니다. 후에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을 때보다도 이 때 참으로 큰 기쁨과 만족을 느꼈습니다.”

더 가까운 예로, 동부 제주 선교 부장이었던 제임스 에이치 모일장로는 194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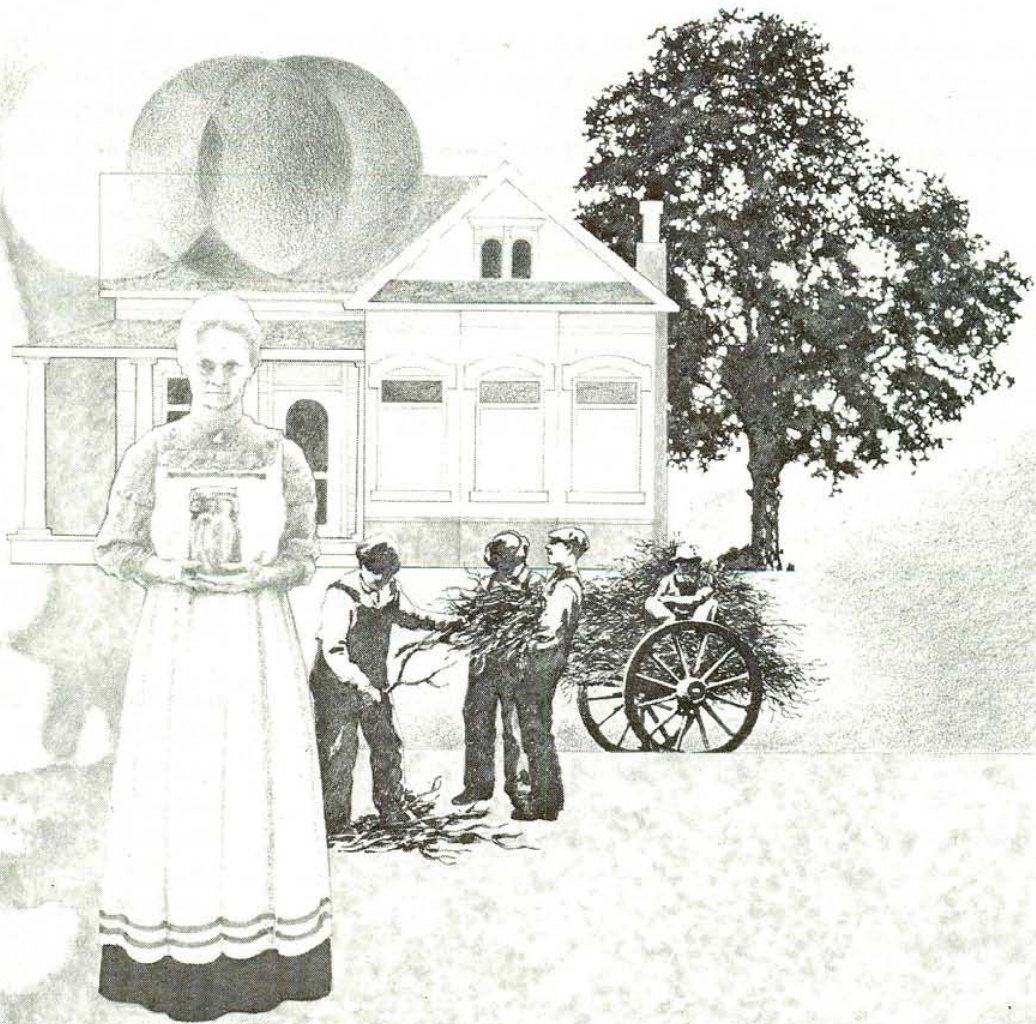
의 기록에서 집사로서의 부름이 그의 소년기의 행동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드에서 개구쟁이들과 어울려 놀던 어린 제임스는 감독이 집사로 부르자 잠시 주저하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점점 개구쟁이들과 멀리하고 집사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되자 감독님은 저를 가장 훌륭한 집사라고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집회소를 털고 쓸고 닦아 깨끗이 청소했으며, 램프에 석유를 넣고, 심지를 자르고, 불을 지피는 등 집회소 관리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였으며 집회소를 정돈하고 문과 출입구를 돌아보았습니

다. ...우리는 차례를 정하여 집회소를 청소했는데 자주 차례가 돌아 왔습니다. 저는 매우 성실히 일했으며 그 후로는 결코 빛나가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왜 어른들은 집사로서 봉사했던 시절에 관해 즐거운 추억을 갖고 있을까요?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집사의 역할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적어도 3가지 확고하고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우정, 봉사, 인격적 발전이 그것입니다.

우정



모일 장로의 말처럼 소년의 행동 표준에 따라 사귀는 친구가 달라집니다. 소년이 집사 정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게 되면 그 정원회 회원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리하여 다음 이야기와 같이 서로 훌륭한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윌리엄 스마트는 어릴 때 친구와 어울려 이웃에 혼자 사는 아주머니를 늘 괴롭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소년들이 집사로 성임되었습니다.

“저는 집사의 영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스마트 형제는 말했습니다. “집사인 친구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나 교회를 위해 장작을 패는 일이 즐

거웠습니다.

하루는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여 어린 집사들이 그 부인의 집 앞에 모여 어떻게 부인을 괴롭혀 줄까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스마트 형제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지난 번에 이 곳에서 만나본 이래 그 소년들의 생활에는 은연중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신권을 가진 집사였습니다.”

장난은 커녕 한 소년이 아주 훌륭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짐수레를 언덕 아래로 끌고 내려가 마른 나무를 싣고 다시 올라와 패서 쌓아 놓자는 것이었습니

다.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본 다른 소년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의했습니다.

짐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본 부인은 펄펄 뛰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웃에 쫓아가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른 나무를 싣고 올라오는 것을 보자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그렇지도 끌치던 어리었던 소년들이 땀투성이가 되어 힘차게 나무를 패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야단을 치다가, 웃었다, 울었다 하며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도 고마우셔라! 전에 나에게 잘못했던 모든 일을 용서한

다!” 그녀와 소년들은 “어떤 조용한 힘이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바로 성임받을 때 함께 받은 새로운 권세와 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사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집사는 다만 모임을 갖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항상 교회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들은 교사, 제사, 감독을 돕는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예컨대 1세기 전에는 그들의 주요 임무가 와드 집회소를 보살피는 일이었습니다.

1874년 마크 린지 집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임을 편하게 갖느냐는 거의 집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이 시작되기 적어도 1시간 전에 교회에 나와 깨끗이 청소하고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성찬 집사와 테이블 및 테이블 보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일, 특히 금식 헌금을 모으는 일도 집사의 활동에 속합니다.

옛날의 집사들이 금식 헌금을 모으던 일은 아마 비교적 흥미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짐수레나 마차를 빌려 두 명의 집사가 할당된 구간을 돌며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 상자, 바구니, 항아리, 봉투에 담긴 물건을 거두었습니다. 헌금을 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예컨대 1903년 유타주 프로보의 두 집사는 월 금식 헌금으로 베이컨 2파운드, 현금 40센트, 과일 1상자, 건포도 1통, 꿀 1강통, 밀가루 43파운드를 짐수레에 싣고 돌아왔습니다.

집사들은 헌금을 거두는 일 외에 육체 노동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했습니다. 즉 집에 페인트 칠을 해 준다든가 나뭇잎을 긁어 모으다든가, 거리의 눈을 치운다든가 심부름을 해주는 일 등입니다. 금세기에 들어설 무렵에 집사들이 와드의 두 가정을 도왔던 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5월 10일, 집사 정원회는 감독단의 승락을 받아 한 자매의 사탕무우 밭에 모였습니다. 그 부인의 남편은 얼마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원회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68명이나 되는 인원으로 일을 하여 9에이커의 밭을 갈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당시 큰 고생을 받고 있던 그 부인의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집사들은 다른 독신 자매의 농장에 가서 또한 수에이커의 밭을 갈아 주었습니다.”

소수의 감독이 집사로 하여금 성찬을 전달케 한 것은 이미 187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세기가 바뀔 무렵에 이르러서야 전 교회에서 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제1차 대전 경에 교회에서 집사의 임무로 발행한 흥미있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식 헌물 수집

감독을 대표하여 말씀을 전함

성찬 전달

과부와 노인을 위해 연료를 마련함

가난한 사람을 돌봄

통지 사항을 알림

모임시 울건의 바람통에 바람을 넣음

교회의 물건을 훌륭히 보존함

매장지 관리를 도움

집회소를 정돈함

집회소 마당을 정돈함

조동협회의 일을 도움

종교 학습반을 도움

안내자로서 봉사함

소년단원으로 봉사함

문에서 대기하는 일

특별한 공지 사항을 배부함

인격적 발전

집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정과 봉사를 통해 중요한 행동 양식과 태도 및 종교에 관한 개념을 배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행정의 기본 원리인 관리인의 직분은 집사로서 봉사할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즉 임무를 받고,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도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돕는 중에 자선을 배우며, 성찬을 전달하는 중에 예배와 경건의 태도를 배우고, 감독과 기타 역원을 돕는 중에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배웁니다.

더 나아가 집사는 정원회 모임에서 정규 복음 교육을 받습니다. 교회의 공과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사가 모임을 유익하게 갖기 위한 공과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유익한 정원회 모임을 계획하고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세기 전 집사의 전형적인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개회 찬송, 개회 기도, 모임기록 낭독이 있을 후에 도덕적 이야기,

읽기, 찬송 등의 순서를 복음의 원리 및 간증 등과 연관하여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원회 모임이 산만하고 체계가 없는 감도 있으나 실제로 복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노래하는 경험을 갖게 해줍니다.

1908년 이후에야 비로소 집사 정원회는 체계적 학습 과정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이후 관리 감독단은 훌륭한 공과 교재들을 준비하여 집사에게 종교적 원칙과 올바른 행동 즉 복음의 이론과 적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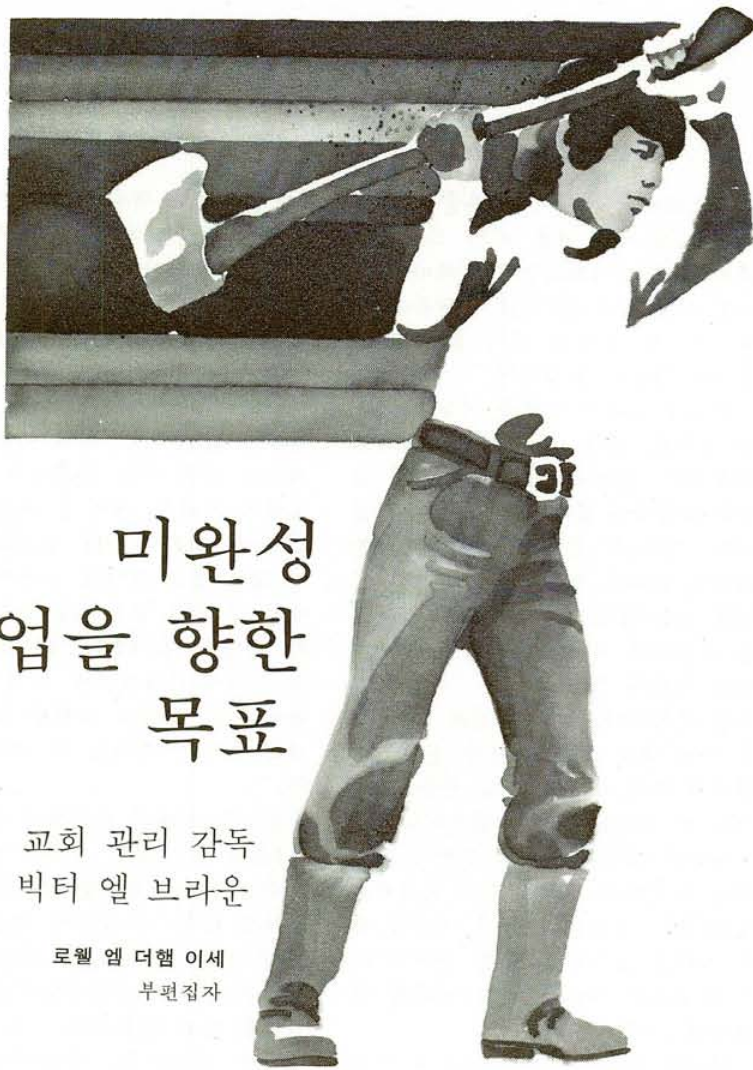
집사의 임무가 갖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우정, 봉사, 인격적 발전 때문에 오랜동안 신권을 소유하고 봉사해 온 어른들은 신권의 사다리의 첫 단에 발을 디딘 집사 시절을 회상하며 감사할 느끼는 것입니다.

집사가 없는 교회는 절름발이와 같다

마력이 아닌 신권의 권능이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며 이 중 집사의 권능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집사가 없다면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첫째, 감독이나 기타 역원은 집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래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곤란을 겪게 됩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집사의 세대가 결여된다면 2년 후면 교사가, 그리고 4년이 지나면 제사도 없게 될 것이며, 10년 혹은 20년이 지나면 벨기세 맥 신권 정원회는 훌륭히 준비되고 자격을 갖춘 성인들로 구성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론 신권의 준비 단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리감영의 세대에는 집사 및 기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교회의 다리와 발로 묘사하여 이들이 없다면 교회가 절름발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아론 신권의 경험이 없는 소년들 자신이 절름발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집사의 권능은 교회의 유익이 되며 동시에 집사 자신의 유익이 됩니다.

2백만 명의 집사. 이것은 엄청난 우정과 봉사와 인격적 발전을 의미하는 수자입니다. 통계상의 수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정과 봉사와 인격적인 발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야말로 기록하는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미완성 과업을 향한 목표

교회 관리 감독
빅터 엘 브라운

로웰 엠 더햄 이세
부편집자

캐나다, 앨버타 카드스톤의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제럴드 브라운은 그의 아들에게 어린 소녀의 힘에는 너무나 과분한 것 같아 보이는 양의 나무를 패라고 했습니다. 어린 빅 브라운은 앨버타의 초원에 나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말을 달리고 싶었으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연령의 소년이 뿔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특별한 과제였으며 빅터 리 브라운은 이러한 과제를 좋아했기 때문에 서슴치 않고 받아 들였습니다. 나무는 브라운 가족이 음식을 만들거나 불을 때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빅터는 나무를 자르는 것이 단지 과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아서 매끈하게 된 도끼 자루를 잡고 빅터는 나무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마음이 혼 혼해 옴을 느꼈습니다. 경쾌한 도끼 소리와 새로 쪼개진 나무에서 나는 신선한 냄새도 좋았지만, 그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거의 다섯 시간이나 지나 마지막 나무를 자르고 난 다음에 가슴에 느껴진 느낌이었습니다. 맡겨진 일을 다 수행하였다는 피곤하면서도 따스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어른이나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해 낸 것을 보고 저으기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진정으로 따뜻하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빅터 엘 브라운은 집사 정원회 회장단의 제일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으며 미완성 과제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과제를 좋아하는 젊은

이였습니다. 앞으로 이 카드스톤 출신의 어린 집사에게 많은 과제가 부여될 것입니다.

빅터 엘 브라운은 현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관리 감독입니다. 그는 전 세계 아론 신권 및 청년지도자입니다. 사랑과 이해와 조직과 정직과 고결한 성품과 모든 과제를 완수하려는 변함 없는 소망으로 교회의 청년 청년들로 하여금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1961년 9월 빅터 엘 브라운을 당시 관리 감독이던 존 에이치 반덴버그의 제1보좌로 불렀으며, 다시 1972년 4월 9일 해롤드 비리 대관장은 그를 교회 관리 감독으로 성별했습니다. 그는 이 때부터 다른 총관리 역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간을 바쳐 교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평상 근무일(그러나 그에게 평상적인 날은 거의 없다.)에는 아침 5시 30분 혹은 5시 45분 경에 일어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들고, 6시 30분에는 언제나 사무실을 향해 떠납니다. 대개 오전 7시에 일과가 시작되며, 바쁜 날에는 점심 식사를 거의 못하게 됩니다. 브라운 감독은 그의 보좌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며 매주 교회 대관장단과 만나 그의 관리 직분에 관한 많은 일들을 토론합니다.

그는 교회의 현세적 기능에 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아론 신권 및 청년회에 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외에 전세계의 아론 신권 회장이므로 워드 아론 신권 회장인 모든 워드 감독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보전 사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 사업 프로그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브라운 감독과 보좌들은 교회의 십일조와 헌금을 받아 십일조 처리 평의회를 구성하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모임을 갖습니다. (이는 교리와 성약 120편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관리 감

독단은 또한 교회 회원 기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 어렵고 방대한 일을 위해 브라운 감독은 매일 그의 정력과 재능을 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감독과 그의 두 보좌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과 본 제이 페더스토운 감독은 매주 하루 저녁은 아론 신권 및 청녀회와 모임을 갖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교회의 청소년을 참으로 끊임 없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바칩니다. 브라운 감독은 교회의 청소년들로부터 종종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한 편지 중에는 문제를 극복했다는 내용도 있으며 문제를 갖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페더스토운 감독은 브라운 감독이 이런 편지를 읽다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위대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에 함께 기뻐하고 실패에 함께 슬퍼하고 염려합니다.

브라운 감독과 두 보좌는 자주 사무실에 모여 관리 감독단의 업무를 토론합니다. 브라운 감독은 빠르고 훌륭한 유모어를 지니고 있다고 두 보좌는 말합니다.

그러나 브라운 감독은 대체로 진지한 성격이며 정력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관리 감독단 제일 보좌 피터슨 감독은 브라운 감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브라운 감독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가 드물게 보는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는 진실로 전 세계 아론 신권과 청녀에 관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염려하며, 언제나 이에 관한 생각을 그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일 시간 조차 없는 것입니다.”

또 페더스토운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그의 직분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와드의 감독들이 와드 아론 신권

회장으로서의 자신의 직분을 브라운 감독이 전 세계 아론 신권 회장으로서의 직분을 이해하듯이 이해하게 된다면 아론 신권 및 청녀의 활동은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브라운 감독은 훌륭한 지도력을 갖고 있다고 그의 보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감독은 브라운 감독의 경청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브라운 감독의 항상 경청하는 태도는 놀라운 정도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았지만 마음을 닫고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브라운 감독은 정력적이고 제가 접해 본 사람들 중 가장 목적 의식이 강한 분이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브라운 감독은 가족과 교회의 젊은이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감독의 성품을 한 두 마디로 묘사해 보려면 누구나 이 구 동성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것입니다. —정직과 고결.

브라운 감독은 저녁 식사 후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갑니다. 테이블에 있는 신문이나 사업 혹은 시사 잡지를 잠깐 훑어 보고는 다시 그의 직분에 관계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가 조용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브라운 자매는 옆에서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합니다. 그녀는 가끔 그토록 조직적이고 정력적이며 헌신적인 사랑하는 남편을 쳐다 보곤 합니다. 남편의 일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아내의 남편이 젊은이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브라운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너무 소극적이어서 지도자의 직분과 책임을 받아 들이기를 두려워 합니다. 저는 남편의 생활과 신념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영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새로운 임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내가 택해졌는지 알 수가 없구로.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말이요!”하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열의를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헌신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옆에서 남편이 노력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는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의 노력이 성과를 가져 올 때는 기쁘지만 간혹 높은 분들의 판단과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을 받아들여 인내와 근면으로 노력해 나감으로써 결국 일은 성취됩니다. 그이가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 집니다.”

브라운 자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음의 두 성구를 그이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더욱 이 성구의 가르침에 가깝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는 분명히 니파이일서 3장 7절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나 니파이는 부친께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이는 또한 교리와 성약 82편 10절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믿음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는 힘이요 간증입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브라운 감독은 교회의 일을 위해 먼 여행을 떠날 경우를 제외하고는 늘 거실의 안락한 초록색 의자에 앉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것입니다. *

질 의 응 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 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

대답 : 메릴 형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에릭이라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합시다. 사람들은 에릭을 매우 영리하다고 말하며, 에릭 자신도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 에릭은 지상의 많은 나라들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오후 그는 학교에서 아시아의 국가들에 관한 필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수와 생활 양식의 다양함에 깊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았으나 하나님 혼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한꺼번에 모두 들으실 수는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아마 천사들에게 시켜서 듣게 할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리처드의 접근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의 가정에서 태어 났으나 고등학교 연령이 되어서야 비로소 활동적으로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몇 가지 중대한 일이 일어나 이를 계기로 복음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몇 주일 간 경전을 읽고 기도한 후 그리스도와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리처드의 간증과 그의 확신에 찬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에릭과 리처드는 교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교회에 가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싫어.”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저, 예를 들면, 어느날 공과 시간에 기도에 관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때 내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없다고 말했지. 대신 기도를 들어줄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야. 에드워드 형제는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경전 구절만 죽 늘어 놓는거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려는 거지. 맹목적인 신앙이라구.”

“정말 재미 있는 문제구나. 현대 맹목적인 신앙이란 말엔 반대야.” 하고 리처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그런 의문을 느꼈었어. 그러나 나는 먼저 이 문제에 관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고 생각해 보았지. 나는 우선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 보고(교서 88 : 62-63 참조) 또한 존 테일러 대관장님의 말씀을 찾아 보았어.

“이 문제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러한 원리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살고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든 일에 일일이 주의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설교집, 26권 31페이지)

“나는 이미 경전과 살아 계신 예언자에 관한 간증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어.

“나는 기도를 했지. 그리고 지난 금식 주일 오후 교리와 성약

88편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 빛이 만물에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어. 물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한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읽고 그의 권세, 영, 영광, 그리고 영향이 온 우주에 미치며, 살아 있는 만물에 빛과 생명을 주는 경로를 창조한다는 것을 알았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자녀와 친히 접촉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리차드의 결론은 해롤드 비리 대관장의 제시에 관한 말씀과 부합하는 아주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대관장님은 우리가 라디오 수신기와 매우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십일조 진공관이 꺼지거나 도덕적 순결의 진공관이 고장나면 우리는 주님이 보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나쁜 상태에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릇된 곳에서 오는 메시지를 주님의 메시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모든 대답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바른 질문을 하는가를 아는 데 있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이란 무엇이며, 이는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지혜를 구할때, 우리의 질문은 성실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질문이란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에 야코브서 1장 5절을 읽었습니다. “너희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셉 스미스는 다음 성구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구를 종종 읽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경은 의심하는 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리차드는 질문하는 방법을 알았으나 에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에릭은 그가 이미 받은 신앙에 근거하지 않고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리차드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진리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신뢰로서만이 해롤드 비리 대관장의 권고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의심없이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구할때 지식, 지혜 그리고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질문하여야 하며, 특히 하나님에 관한 일에서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질문하여야 합니다.

*

로저 메릴
 교회 조직 개발 및 훈련 기구 책임자

“부부가 신전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에서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대답 : 켈리모어 장로



“부부가 신전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우선 신전 이혼이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전 이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신전 인봉의 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전 결혼을 한 부부는 합법적 결혼이라는 국법에 따르는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세와 영원을 통한 영원한 반려자로 인봉되는 것입니다.

법적 이혼은 법적 결혼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며 부부로서의 인봉을 취소하는 것은 교회의 대관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흔히 신전 이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인봉의 취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전에서 결혼 인봉을 받은 후에 법적 이혼을 한 사람은 교회의 대관장단의 승인서를 받아야만 감독의 신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장단이 이혼 승인을 하면, 대관장 앞으로 신전 인봉 취소 신청을 냅니다. 신전 인봉 취소 신청은 보통 여자가 이중으로 인봉될 수 없으므로, 인봉을 취소해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인봉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전 인봉이 취소될 경우 그 자녀는 내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부모의 인봉 취소가 자녀와 부

모 사이의 인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득권의 축복인 성약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인봉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인봉될 수 없습니다. 내세에서 누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성약의 자녀에 관해 교회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약으로 태어난 아이는 다만 그 친부모에게 인봉되며 그의 어느 사람에게도 인봉되지 않는다. 본 규정은 입양의 경우나, 친부모의 요청이나 성년이 된 자녀의 요청이 있어도 변경되지 않는다.”(76페이지)

성약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생득권의 축복이며, 자녀가 현세에서 해의 왕국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면 부모의 행동에 관계 없이 생득권을 보장 받고 영원한 부모로서의 자격을 확실히 얻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세에서 복음대로 살며 계명을 지키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열쇠입니다. *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장로
십이사도 보조

“부모가 이미 십일조를 바친 후 저에게 주었을 때 다시 그것에 대한 십일조를 바쳐야 합니까?”

대답 : 브라운 감독



교회의 총관리 역원에게 십일조에 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므로 대관장단은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와드 감독, 지부장등에게 1970년 3월 19일자로 이에 관한 공문을 발급하였습니다. 대관장단은 이 공문에서 교리와 성약 119편 3-4절에 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이후부터는 매년 저들이 얻은 모든 이익중 십분지 일을 바치라. 이로써 나의 성 신권을 위하여 저들이 지켜야 할 영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인용한 후에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라도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주님께 얼마를 바쳐야 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에 부연하여 “이자”는 “수입”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은 연말에 소속 와드의 감독과 갖는 십일조의 결산에 참여하여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는지 부분적 십일조를 바쳤는지를 감독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소년은 어떠한 것을 수입으로 간주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십일조를 바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고 부모와 의논해야 하며 감독의 권고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치는 사람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십일조는 각 회원과 주님간의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의 종인 감독은 이를 받고 회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치면 마음 속에 평안을 느낄 것이며, 완전한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을 의심치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익(혹은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부모와 상의한 후,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자에게 주신다는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여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명과 기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여 생활의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교회 관리 감독

새 연례 지역 모임

제 1차 연례 지역 모임이 곧 범교회적으로 열리게 된다. 전에는 각 지역에서 해마다 두 차례의 연례 지역 모임을 가졌었다. 과거에는 각 보조 조직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례 대회를 가졌었다. 앞으로는 이 모든 모임을 통합하여 지역별로 연 1회의 연례 지역 모임을 갖게 된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지시를 받아 마련된 이 모임은 그들의 승인을 받았다. 신권 및 보조 조직에 관한 내년도 연례 지침이 이 모임에서 발표된다. 연 1회 갖는 이 모임은 여러 분야의 책임에 관해 훈련을 받게 된다.

지역 모임 중 세계 각 지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마련된 지침을 받게 된다. 각 지역에서도 1개월 이내에 모두 동일한 지침을 받게 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모임에서 받은 지침은 유타 스테이크, 홍콩, 스톡홀름, 스웨덴 기타 세계 각지에서 받은 지침과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받은 지시와 지침은 교회의 차기 교과 과정 연도부터 실시된다.

이 모임은 십이사도 지역 대표의 지시를 받아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총관리 역원인 지역 관리자가 참석한다. 십이사도 지역대표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4월에 열리는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교회 대관장과 기타 총관리 역원으로 부터 받은 지시 사항을 지역 모임에 전해 준다.

교회 프로그램과 교과 과정에 관한 지침 외에 신권 지도자는 신권 책임에 관한 기본 훈련을 받는다. 예컨대 대제

사 그룹 지도자와 그 보조는 신권 사업과 계보에 관한 임무에 대하여 교육을 받는다. 칠십인은 선교 사업에 관한 훈련을 받는다. 장로는 비활동 장로의 활동 촉진 등과 같은 중요 분야에 관해 교육 훈련을 받는다.

이 모임은 일반적으로 7시간 내지 9시간에 걸친 교육 모임이 된다. 프로그램, 교과 과정 및 기본적 책임에 관한 지침 외에, 오후에는 미술, 공예 전시, 음악, 민속 무용 등의 문화 활동 특별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 참석자들이 전시와 오락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분한 점심 시간을 마련한다.

종전의 지역 모임과는 달리 모든 스테이크 신권 및 보조 조직 회장단이 참석하며 또한 선교부 산하의 지방부의 신권 및 보조 조직 회장단도 특별히 초청할 수 있다. 이 모임에 참석하는 스테이크 역원은 다음과 같다. 스테이크 부장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집행서기, 스테이크 서기,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회장단, 그룹 지도자와 보조, 감독단, 워드 집행서기, 워드 서기, 스테이크 청년반 및 특별 이해반 평의회 대표(형제 및 자매), 스테이크 체육 책임자,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서기, 스테이크 초등학교 회장단 및 서기,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 주일학교 유년 부장 및 서기, 스테이크 청년 책임자, 교문 및 서기.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지시와 지침을 받아 훌륭히 준비함으로써 교회 회원에게 많은 영향과 가르침을 주어 강한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용돌이 치는 물

버너딘 비티
세리 톰슨 그림

칭카이는 겁장이었다. 폭풍우, 밤의 어둠, 짙은 개를 무서워했다. 높은 곳도 무서워했는데 특히 강 건너 마을에 있는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형 웬쇼우와 함께 현수교를 건널 때는 더욱 그랬다. 칭카이의 농가는 강을 사이에 두고 마을과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다.

“퀴조(빨리 와) 칭카이!”하고 웬쇼우는 어느날 아침 동생에게 소리치고는 재빨리 좁고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 맞은 편에서 기다리는 친구 텡구오에게 갔다. 칭카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손잡이 밧줄을 꼭 잡고 흔들거리는 다리 위로 조금씩 걸음을 옮겨 놓았다.

“칭카이, 다리 안 끊어질테니 걱정마”하고 텡구오가 외쳤다. “왜 그렇게 항상 겁을 내?”

“몰라, 나도” 다리를 건너온 칭카이는 고개를 떨구고 조그맣게 대답했다. “칭카이는 어려서 그래”하고 웬쇼우가 빨리 변명을 했다.

텡구오는 웃으면서 “우리가 저에 만했을 때는 다리를 누가 먼저 건너나 시합까지도 했잖아!” 하고 말하더니 칭카이를 돌아다 보며, “칭카이, 너 그러 다가는 커서도 토끼처럼 약한 겁장이가 될꺼야!” 라고 주의를 주었다.

칭카이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다. 이를 본 웬쇼우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고는 “내일은 쉬는 날이야. 우리 낚시질 갈까?”하고 다정하게 말했다.

“야오(응)”칭카이는 좋아서 얼른 대답했다.



“나도 가도 돼?” 텅구오가 물었다. 웬쇼우는 어깨를 움츠려 보이며 “가고 싶다면 물론이지.”하고 말했다.

그날 학교에서 칭카이는 낚시질 가서 용감한 일을 한 번 해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리도 제대로 못 건너는 주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바보 같

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형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하늘은 새까맣게 흐렸고 바람은 한 점도 없었다. 칭카이는 할아버지께서 겪으셨던 대폭풍우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다. 홍수가 나서 다리와 집이 떠내려 갔었다. 할아



버지 식구들은 나무 조각을 붙들고 떠나려 가다가 높은 땅에 닿아 겨우 살아 있었다. 칭카이는 오늘 같은 날에는 강 근처에 얼썩 하기도 싫었으나 형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다행히도 아침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낚시질은 다음 날로 미뤄야겠다고 말씀하시자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다.

“난 오늘 마을에 일이 있단다. 너희 어머니는 이 모에게 가 봐야 되구. 내일이나 올텐데 너희들이 남아 농장을 돌봐야 할게 아니냐. 아무래도 폭풍우가 올것 같은데.”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칭카이와 웬쇼우는 닭과 토끼에게 모이를 주었다. 집 뒤의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텡구오가 낚시대와 미끼통을 들고 뛰어왔다.

웬쇼우가 아버지가 낚시질을 못가게 한 이유를 설명하자, “날이 개는데 뭘!” 하고 텡구오가 말했다.

웬쇼우는 하늘을 쳐다 보더니, “정말 그런데, 가자 칭카이야. 아버지도 괜찮아 하실거야.” 하고 말했다.

“우리보구 집에 있으라고 하셨잖아.” 하고 칭카이가 형에게 말했다.

“칭카이, 넌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러지?” 하고 텡구오가 놀렸다. 그러더니 웬쇼우에게, “너희들이 안 가면 나 혼자 간다!” 하고 강을 향해 급히 떠났다.

“기다려 같이 가!” 웬쇼우가 불렀다. “칭카이가자!” 동생에게 말했다.

“가지 마! 형! 아직도 동쪽 하늘은 까맣게 흐려 있어.” 칭카이가 애원했다.

“비가 조금 와도 괜찮아!” 하고 웬쇼우는 큰 소리로 말하더니 한숨을 쉬며, “칭카이, 넌 어쩌면 좋으니? 네가 집을 내니 친구 보기가 창피해 죽겠다.” 하고 말하고는 낚시대를 집어 들더니 텡구오를 따라 달려 갔다.

칭카이는 목이 메었다. 전에는 형이 언제나 그를 변명해 주더니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칭카이가 비참한 생각이 든 것은 물론이다.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칭카이는 가족 우리의 문을 잠그려 뛰어 나갔다. 문을 잠그고 다시 집에 돌아 올 때는 벌써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고 나뭇가지는 바람에 불려 땅에 닿을 듯 했다. 그는 집의 한구석에 몸을 피하고 떨면서 웬쇼우와 텡구오를 생각했다. 어디로 갔을까? 왜 돌아 오지 않을까? 궁급했다.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은 흘러가고 폭풍우가 더 맹렬해짐에 따라 칭카이는 걱정이 되어 미칠 지경이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났다. 형과 친구가 위험에 빠져 있는 이 때 토끼처럼 숨어 있을 수가 없었

다. 칭카이가 앞 문을 밀어 열자 갑자기 비가 그쳤다. 그러나 마당을 가로 질러 가니 요란한 소리가 커를 울렸다. 가슴이 두 뺑뺑이질을 했다. 강물이 불어 흘러 내리는 소리였다.

물소리를 듣고 있을 때 낮으막한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 왔다. “웬쇼우! 텡구오!” 하고 소리치며 소리 나는 쪽으로 갔다. 맞은 편 언덕에 다리를 고정시켜 놓았던 기둥이 떠나려 간 것을 본 그는 무릎의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웬쇼우와 텡구오는 부서진 다리를 붙잡고 성난 물결 속에서 줄 끝에 달린 낚시찌처럼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고 있었다.

“칭카이야! 우릴 끌어내 줘!” 형의 목소리가 약하게 들려 왔다. 칭카이는 홀린 사람처럼 바라보고만 있었다. 물은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고 곧 그들은 떠나려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려움을 억누르고 그는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조심해, 칭카이야!” 웬쇼우가 소리쳤다. “뚝 밀이 강물에 패었어.”

칭카이의 발 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너무 놀라 무릎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그러나 땅에 납작 엎드려 다리를 고정시킨 기둥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기어 갔다. 마침내 다리를 잡아 맨 밧줄을 붙잡았다. 온 힘을 다해 끌어 당겼다. 조금씩 끌려 왔다. 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밧줄이 느슨해 졌다. 웬쇼우와 텡구오가 뚝 위에 기어 올라온 것이다.

칭카이는 덜덜 떨고 있는 두 소년을 일으켰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 웬쇼우와 칭카이의 눈이 마주쳤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강물에 떠나려 갔을꺼야.”

“어휴!” 텡구오도 감사하다는 뜻이 큰 숨을 쉬었다. “칭카이, 내가 널 잘못 보았어. 넌 사자처럼 용감해!”

칭카이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아냐, 난 아직 토끼야. 강에는 억지로 갔던거야. 아직까지 그렇게 무서워 본 적이 없는 걸.”

웬쇼우는 웃으며 “우리도 무서웠어. 용감하다는 것과 무서움이 없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 용감하다는 것은 무서움을 참고 극복하는 거야!” 하고 말했다.

“맞어! 그러므로 칭카이는 용감했어!” 텡구오도 맞장구를 쳤다.

칭카이는 빙긋이 웃으며, “다리가 고쳐지면 정말 용감해져 보겠어.” 하고 말했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소리 쳤다. “저것 봐! 폭풍우가 지나고 하늘이 맑게 갓네.”

*

옛날 먼 나라에 매우 불행하게 살고 있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땅도 많았고 신하도 많았으며, 재산도 많았고 좋은 옷도 많았으며 빨리 달리는 마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방의 벨벳 휘장의 색깔을 바꾸면 아마 행복해 질런지도 모르지. 왕실에는 푸른 색이 어울릴거야.” 그러자 모든 신하들은 급히 서둘러 임금님 방의 벨벳 휘장의 색깔을 바꿨습니다.

임금님은 옥좌에 앉아 파랗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벨벳 휘장을 바라보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흰 토끼털로 만든 옷을 입으면 행복해 질런지도 모르지 하고 임금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냥꾼들의 나서서 많은 토끼를 잡아 그 털로 임금님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임금님이 옥좌에 앉으니 사람들이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 마차를 네 필의 말 대신에 여섯 필의 말이 끌면 아마 행복할지도 모르지.” 신하들은 곧 훌륭한 두 필의 흰 말을 가지고 와 임금님의 황금 마차를 끌게 했습니다. 여섯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길거리를 지나가니 사람들이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었으나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한 현명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는 임금님보다 훨씬 가난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입는 셔츠를 임금님께서 입으시면 아마 행복해 지실런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메이بل 존즈 개뿔 그림
하워드 포스트 글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낡은 옷을 입
고 걸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라
안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은 아름답고
푸른 호수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낚
시질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금님
이 손짓을 하자 그는 배를 서어 왔습
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하고 임
금님이 물었다.

“물론이죠.”하고 어부는 대답했다.
“더 바랄 것 없이 완전하게 행복하
다고 확신합니까?”하고 임금님은 다
시 물었다.

“그야 뭐, 더 큰 배를 갖는다면 더
먼 곳에 나아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더 행복해 질 겁니
다.”하고 그는 대답했다.

“안됐군.”하고 임금님은 다시 떠났
습니다.

다음 번에 만난 사람은 숲속에서
큰 도끼로 나무를 켜는 사람이었습니
다. “당신은 행복합니까?”하고 임금
님이 물었다.

“물론이죠.”하고 그는 대답했다.
“더 바랄 것 없이 완전하게 행복하

다고 확신합니까?” 하고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야 뭐, 저절로 움직이는 톱이
있었으면 나무를 더 빨리 자를 수 있
고 그러면 더 행복해 지겠죠.”하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안됐군.”하고 임금님은 말했습니
다.

다음에 만난 사람은 누런 소에 쟁
기를 달고 밭을 가는 농부였습니다.
태양은 빛나고 농부는 휘파람을 불면
서 바람이 나무끼는 풀밭 위로 소를
몰고 가면 밭 이랑을 따라 새들이 날
아와 앉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하고 임금님
이 물었다.

“네.” 농부는 휘파람을 불면서 대
답했다.

“더 바랄 것 없이 완전하게 행복합
니까?” 임금님은 다시 물었다. “쟁
기를 끌 아주 훌륭한 몇 필의 말이
있으면 좋겠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 충실한 친구가
천천히 끄는 게 더 좋습니다. 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새들의 노래에
맞춰 휘파람을 불며 밭을 가는 게 좋
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야말로 완전하게
행복한 사람이로구나.”하고 생각하며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당
신의 셔츠를 빌려 입을 수 있겠습니
까?”

“아, 전 셔츠가 없어요. 필요가 없
는 걸요. 따뜻한 태양과 보드라운 흙,
시원한 미풍 속에서 새와 함께 노래
하며 밭을 가노라면 전 더할 나위 없
이 행복하답니다.”하고 계속하여 밭을
갈았다.

“기다리세요.”하고 임금님은 말했
습니다. 그리고는 셔츠를 벗어 땅에
다 던졌습니다. 농부에게 다가가서
쟁기를 잡고 하루 종일 함께 일했습
니다. 햇볕은 따스하게 쬐었고 새들
은 즐겁게 노래를 불러 주었으며 농
부는 세상의 착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임금님은 행복할 줄 느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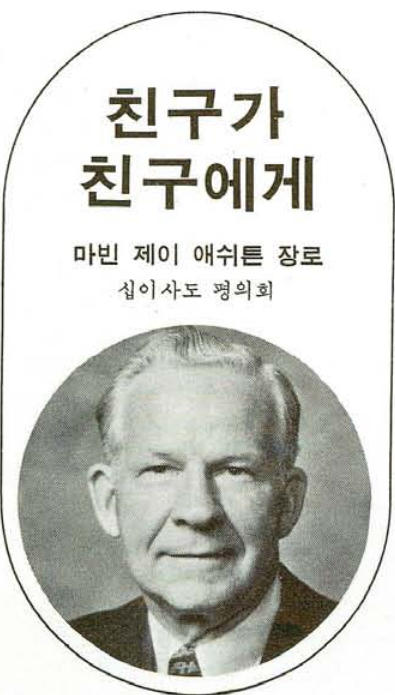


길에서



친구가 친구에게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나 에게는 산에서 사자 사냥하는 친구가 있었다. 말에 안장을 얹고 안장 주머니를 단단히 잡아 매고는 총의 정비 상태와 기능을 점검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루는 그의 집에 가 보았더니 다 큰 사냥개 한 마리가 우리에 매여 있었다. “근사한데!”하고 말했다니,

“팔거야, 일을 망쳐놓는 놈이야.”하고 대답했다. “왜? 어째서 그래?” 나는 짐짓 놀라서 물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그 개는 강아지였을 때부터 사자 사냥 훈련만 받아 왔는데 지난 번 3일간 사냥 나갔을 때는 사자는 커녕 사슴, 이리, 토끼 새끼들만 쫓아 다니더라는 것이다. “이젠 한 물 갔어. 나한테 붙어 있으려면 사자를 찾을 줄 알아야 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으니 말야. 혈값에 넘겨야겠어.”



나는 이 멋 있고 건강한 개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걸 생각하니 아까운 느낌이 들었다.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 볼 때 나도 부모의 말을 따르기 힘들 때가 있었음을 기억한다. 섹스폰을 연습하는 것보다 야구나 농구가 더 재미있었으며 때로는 교회에 가기 싫은 적도 있었다. 내가 성장하여 스스로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순종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은 순종을 배우기까지 필요하면 저들이 겪는 고난으로 징계받아야만 하느니라.” (교성 105 : 6)

부모,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은 종종 우리를 비

난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정말 하기 싫은 일(괴로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다.

우리 주변의 자연계는 우리에게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줄무늬 다람쥐가 여름에 식량을 장만해 놓지 않으면 겨울에는 굶어 죽는다. 새가 알을 낳을 둥지를 짓지 않으면 새끼가 죽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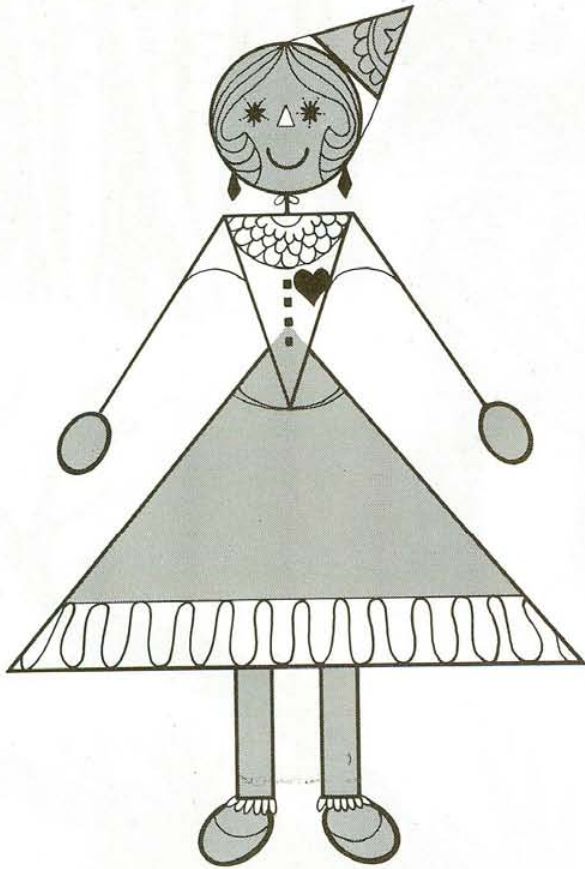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풍성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 올바른 판단력을 축복으로 갖게 되고, 훗날 훌륭한 부모가 되어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 훌륭한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나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 *



심심풀이

점을 이어서 딸기와 꿀을 좋아하는 동물을 그려보세요.



미스 스지의 모습

그레엄 테디

이것은 미스 스지의 모습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둥근 얼굴을 보세요. 이것은 원 ●입니다.

달은 미스 스지의 얼굴처럼 둥근 때도 있죠. 이것은 만월이라고 부르지요. 달은 때로 스지의 입처럼 U모양을 할 때도 있죠. 이것은 초승달이라고 부릅니다.

스지는 재미 있는 파티를 생각하고 웃고 있습니다. 스지의 파티 모자는 삼각형 ▲입니다. 스지의 코도 삼각형이군요. 스지의 눈이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별 ★입니다.

스지의 친구들은 모두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스지의 가슴 ♥은 두근두근거립니다. 가슴이 어디인지 아셨죠? 스지의 목과 팔은 직선—입니다.

손과 발이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타원 ●●이죠.

스지는 파티에 가기 위해 엄마의 귀걸이를 했답니다. 이것은 다이아몬드형 ◆이군요. 블라우스의 단추는 사각형 ■입니다.



컬러하기

점이 있는 칸을 색칠하시오.

복지 사업에 있어서의 상호부조회의 역할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자매들은 상호부조회에 활동적으로 참여하여 가족 예비의 원칙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지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관리 감독단에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는 신권 소유자이며, 가장이며, 가정의 관리자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협의하여 가정에 축복을 가져 오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교회 가족의 절반인 모든 자매 회원을 대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신권의 계획이 참으로 지혜로운 계획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교회의 여성은 훌륭한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지지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상호부조회는 복지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을 상호부조회가 돕도록 예언자를 통해 명하셨습니다. 복지 사업에 대한 상호부조회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부조회는 교회 각 단위 조직의 신권 조직과 협조합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관리 감독단과 협조합니다. 지역내의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한 명은 지역 신권 복지 사업 지도자들과 협조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스테이크 부장단과 협조합니다. 또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와드 감독단과 협조합니다.

1946년에 열렸던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당시 십이사도 평의회의원 일원이셨던 해롤드 비 리 장로는 초기에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던 초기 복지 계획에 관해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대부분의 복지 혜택 대상 가정의 가장은 숙련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가족

을 도울 수 있는 가사나 가정 관리의 기술이 전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지 1946년 12월호 809-17페이지 참조)

복지 사업의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여성들이 근면, 절제, 독립심, 노동, 분별 등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려운 때를 당하여 개인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의 모든 가정 예비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회의 자매들을 돕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와 관계되는 공과를 계속하거나 새로운 학습 과정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과로 화폐, 가정, 시간 관리, 가정 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여성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부조회 역원들이 복지 사업 지침서에 명시된 그들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스테이크 및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단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우리는 방문 교사에게 자세한 지시 사항을 주어 그들이 방문 대상 가족의 필요 사항을 더욱 잘 인식하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여, 상호부조회 회장을 통해 감독에게 보고함으로써 필요한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모임 중 상호부조회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여 복지 사업 분반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부조회 회원으로 하여금 복지 사업 계획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지상에 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상호부조회와 신권 조직이 협력한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았읍니다.

어느 추운 겨울 날, 두 방문 교사가 최근 새로이 그 와드로 이사온 회

원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더 문을 두드려야겠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두 번, 세 번, 계속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약간 열렸습니다. 부인과 어린애가 코트와 잠옷으로 몸을 둘둘 말고 서 있었습니다. 부인은 마치 못해 방문 교사들을 추운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이해와 염려로 가득 찬 따뜻한 질문을 받고 그 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남편은 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와 입원비 때문에 부부가 수년간 저축한 돈을 다 써 버려 남편이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료도 떨어져 이 젊은 부인과 아기는 침대 속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고 있었으며, 1리터의 우유와 빵 반

덩어리로 월말까지 연명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방문 교사들이 도와 주겠다고 말하자 그 자매는 “남편은 자존심이 강해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방문 교사들은 그 자매에게 복지 프로그램은 주님의 프로그램이며 사람의 자존심이나 독립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러 주는 것이라고 지혜롭게 설명했습니다. 상냥한 태도로 잘 설득시킨 결과 마침내 젊은 부인은 상호부조회 회장의 방문을 받기로 허락했습니다.

곧 상호부조회 회장과 감독이 그 집에 도착했습니다. 연료가 배달되어 난로를 피웠으며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었으며 식단표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에 감독은 병원으로 남편을 방문하고 가족의 염려는 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젊은 남편에게 신권 축

복을 하여 병에 대하여 자신을 갖게 한 결과 차츰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상호부조회 교육 담당 보좌는 그 부인을 찾아가 제한된 물질로 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방법을 제언해 주었습니다.

교회의 여성으로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의 가정을 향상시키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는 와드와 가정을 준비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여러분과 협조하는 가운데 함께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훌륭한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봉사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통찰력

모든 말일성도는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인격적 지침을 찾으며 복음의 원리를 공부하고 적용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깊은 통찰로 인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서로 나누어야 하며 독자의 투고를 기대한다.

화평의 은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빠져 있는 남편은 아내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증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롭고 화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의와 화평을 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얻는 최선책은 평강의 왕에게 스스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훌륭하고 온전하게 되려면 분명한 사고력을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와 의로운 현신을 함으로써 육신의 쾌락에 비할 바 없는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평안은 빈부 귀천에 관계 없이 누구나 평등히 누릴 수 있습니다. *

스터얼링 더블류 실

(크리스마스 모임 말씀, 메저렛 출판사, 1973, 57, 26페이지)

낮익은 얼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만행과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증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상 생활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더라도 아버지와 주님인 만행을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의 기억으로부터 장막으로 가리워진 채로 이곳 지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의 장막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얼마나 낮익은 얼굴인가를 깨닫고 잠깐 놀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의 말씀처럼 지상에서 우리가 왜 그토록 어리석었는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시며, 우리의 성공을 바랍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늘 나라에는 우리를 염려해 주고 우리가 이기기를 갈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행동을 보여줄 때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활과 회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

에즈라 테프트 벤슨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말씀(1974년 12월 10일)

알아맞히기

존 에이 트베트니스

아래의 각 문제는 성경과 물몬경에 나오는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공란에 두 사람의 성경과 물몬경에서 각각 하나씩 기록한다. 물몬경에 나오는 이름보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더 많이 맞혔으면 물몬경에 관한 지식의 약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두 정답을 했다면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를 공부할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1. 교회를 킵박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 하늘의 시현을 보았다. —
2. 소년 시절에 전군의 사령관이 되었다. —
3. 가정의 멸망을 피하기 위하여 배를 만들어 다른 대륙으로 건너갔다.
4.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났다.
5.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자손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 주었다.
6.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편지를 썼다.
7. 바빌론에게 (갈데아인) 에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견하였다.
8.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돌보면서 많은 도시를 여행했다.
9. 아들 왕자를 선교사로 보냈다.
10.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11. 한 차례의 싸움으로 적군을 케멸하고 적장의 목을 잘랐다.
12. 왕의 명령으로 불에 던져져 목숨을 잃었다.
13. 왕손이 아닌 사람으로 왕위를 이어 받게 되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14.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
15. 자신의 모든 군대를 멸망으로 이끌었다.



15. 바빌	(에베라기 14:23-28)	(이디서 14-15쪽)
14. 모세	(에베라기 3-14쪽)	(포사이아 7-8, 22쪽)
13. 기르(기르)마란	(사기 8:22-23)	(포사이아 23:6-14)
12. 사드락, 메삭, 아베티드	(다니엘 3:8-30)	아비지 벨마
11. 다윗	(사도행전 17:40-57)	(포사이아 17쪽)
10. 마수	(사도행전 17:1-2)	아비지 벨마
9. 요시아	(역대기 하 17:7-10)	(이디서 15:29-31)
8. 바론	(사도행전 13-38쪽)	포리엘로오이
7.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21:3-10)	(레벨레 7:10-11)
6. 바론	(에레미야 21:3-10)	나비
5. 야푸(이스라엘)	(이사야 39:5-7)	(포사이아 28:1-9)
4. 아브라함	(창세기 12:1-5)	아비지 벨마
3. 노아	(창세기 7-8쪽)	(에베라기 5-16쪽, 29-35쪽)
2. 다윗	(사도행전 18:5)	아비지 벨마
1. 사론(비론)	(사도행전 9:1-6)	(나파이아서 14쪽)



칠십인: 풍부한 역사

에스 딜워스 영
칠십인 제일 평의회

1975년 10월 4일 금요일, 솔트레이크 시티의 그레이트 태버나클에서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이 제145회 교회 반연차 대회의 개최를 알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날 아침 대관장님의 극적인 발표는 전파를 타고 전세계에 퍼졌으며, 한밤중에 다시 방송되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사업 특히 선교 분야에서 봉사하실 네 분의 새로운 총관리 역원을 여러분 앞에 발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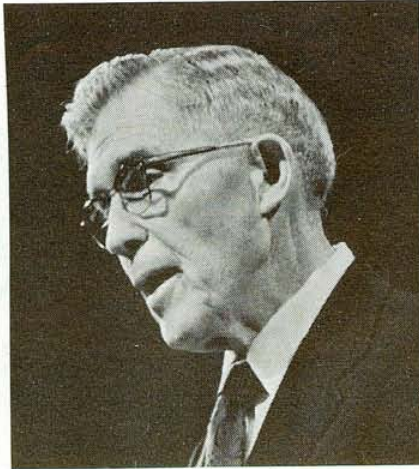
“진 알 룩 장로를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으로 임명합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은 점차적으로 칠십인의 정원이 채워질 것이며, 회장단은 칠인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세 분의 형제가 칠십인 제일 정원의 회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세 분은 찰스 에이 디데이 형제,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형제, 조지 피 리 형제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은 점차 확장되어 칠십인의 정족 회원을 갖추게 될 것이다. 세 분의 새 회원은 여러 분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교회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게 된다.

칠십인 제일 정원이 조직된 것은 140년 전이다. 당시 이것을 조직한 것은 극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1835년 2월 7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정규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 가고 있었다. 찬송가를 불러 주기 위해 왔던 조셉 영과 브리감 영도 함께 가고 있었다. 이 두 영 형제들은 노래를 매우 잘 불렀으며 예언자는 그들의 이중창을 대단히 좋아했다.

예언자는 이 때 브리감 영에게 다음 일요일, 즉 2월 14일에 모임을 갖



도록 하라고 이르고 십이사도를 조직할 의향을 보였다. 그는 십이사도의 조직에 대하여 잠깐 설명한 후 브리감 영도 그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언자는 다시 조셉을 돌아 보며 말했다. “조셉은 칠십인 회장이 될

것세.”

이것이야 말로 구세주께서 “달리 칠십인”을 보내신 이래 “칠십인”이란 말의 의미가 설명된 최초의 일이었다.

이어서 예언자는 십이사도와 칠십인은 시온 진영의 충실한 회원 중에서 선택되리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님 앞에서 회생을 했으며, 시온의 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면 생명까지도 바쳤다.

그 해 봄에 열린 모임에서 칠십인 정원이 조직되었다. 정원회 조직과 이 정원회를 조직할 수 있는 신권의 권능에 관해 약간의 오해도 있었다. 이들은 일반 기독교 교회에서 새로이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받은 칠십인과 대제사 간에 신권의 권능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예언자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6명을 대제사 정원회로 돌려 보냈다. 조셉 영은 그대로 남아 선임 회장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봉사하도록 다음 6명의 회장이 부름받았다: 존 굴드, 제임스 포스터, 다니엘 에스 마일즈, 조사이어 버터필드, 셀몬 지 그리고 존 게이로드 등 6명이다.



디데이



브래드포드



리

요셉 스미스는 생전에 네개의 칠십인 정원회를 조직했다. 제이 정원회, 제삼 정원회와 반수로 구성된 제사 정원회에는 회장이 없었으며, 대신 제일 정원회의 회장들이 모든 정원회를 관리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돌아가신 후 1845년에 십이사도 정원회는 칠십인을 재조직했다. 35세 이하의 장로들로 총 10개의 정원회를 조직했다. 각 정원회의 회장들은 제일 정원회의 63명의 회원 중에서 선출되었다.

이와같이 7명의 회장이 제일 정원회를 관리하였으며, 모든 칠십인도 관리하였다. 제일 정원회의 63명의 회원들은 7명씩 나누어져 9개의 정원회의 회장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일 정원회의 모임이 필요할 때는 모든 정원회의 회장단이 모이게 된다.

그 때 성도들은 서부로 이동하게 되었다. 10개의 정원회의 모든 회원들은 새로운 정착지의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정원회 모임이건 다수 회원의 참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원회 간의 회원 이동도 없었다.

1883년, 존 테일러 대관장은 모든 정원회를 재조직했다. 그는 각 스테이크에 하나씩 정원회를 두게 하고 모든 칠십인은 각기 거주 지역의 스테이크에 있는 정원회에 속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는 63명이 나누어져 구성된 각 정원회의 회장단 중 선임 회장이 제일 정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실시된 적은 테일러 대관장 때로부터 한 번도 없었다.

해가 지나감에 따라, 제일 정원회의 필요성은 분명치 않게 되었다. 정원회를 창설하도록 한 1835년의 계시는 다음과 같다.

“칠십인도 부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과 온 세상 사람에게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 이같이 교회 안에서 이들이 부름을 받는 직분의 의무는 다른 역원과는 다르도다.

“저들은 이제 말한 십이 특별 증인 곧 사도의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교리와 성약 107:25, 26)

당시의 교회 조직은 규모가 작았으므로 십이사도를 보조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정원회와 관계없이 선교사로 부름 받을 수 있었다. 선교부를 조직하고 개종시키는 문제가 중요 목표였다.

십이사도를 보조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제일 정원회는 수년간 조직되지 않았다. 1930년대까지도 계간 스테이크 대회에 두 명의 총관리 역원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사정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보조 조직의 회장으로 봉사했던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교회의 성장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스테이크와 선교부의 회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관리 역원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스테이크 관리를 돕기 위해 새로이 십이사도 보조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 선교부의 회원도 증가함에 따라, 이들은 선교부도 관리하게 되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제는 선교 사업을 강화할 시기이다. 1975년 봄에 30개 이상의 선교부가 증설되었다. 선교사의 수도 획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현재, 133개의 선교부에는 21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있다(이것은 수천명의 스테이크 선교사를 제외한 수자이다). 가까운 장래에 선교부와 선교사의 수자에

획기적인 증가를 기할 계획이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은 우리가 노력할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히”고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경고를 해야 하며, 받아 들일 자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젊은이는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교회 봉사의 일부로 생각해야 한다. 선교사가 될 것인가 대학에 진학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선교사 생활을 마친 후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역대 대관장은 그의 책임을 영감에 따라 가장 훌륭히 완수하기 위해서 교회의 조직 구성을 변경해 왔다. 이것은 현대의 계시에 완전히 부합하는 일이다.

현대의 계시란 간단히 말해서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 주어지는 계시이다. 오늘날 살아 계신 예언자는 1830년, 1840년, 1870년, 혹은 1950년에 적합했던 교회 조직에 묶여 있지만은 않다.

살아있는 예언자가 세계와 교회의 변천에 맞추지 않았다면, 모세의 율법을 벗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 민족처럼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 결과로 1000년 후까지 그들의 시대에 맞지 않는 사회 조건 속에서 살았던 것이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는 칠십인에 관한 계시를, 오늘날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칠십인 제일 정원회를 조직했다.

필요에 따라, 정원회는 계시된 정원 칠십인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가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더 많은 정원회가 생겨 교회가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많은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



자매님은 어머니와 같아요

아데드 지 켈

“스 테이크 부장님이 보내서 왔어요. 자매님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제 문제를 이해할거라고 하시더군요. 나의 집 때문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음성에는 다소 원망의 기색이 보였다. 우린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녀의 원망스러운 듯한 목소리는 실은 내적 고통의 표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녀는 나에게 마음을 털어 놓았다. 자녀를 갖는 축복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우리는 서로 낯선 사이였으나 개인적인 깊은 관심을 나누는 가운데 자매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 스테이크 부장이 이 예민한 여자를 나에게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느꼈다. 헤어질 때 그녀는 얼핏 돌아서더니 나를 쳐다 보았다. 잠시 아무 말 없이 바라보더니 몹시 고마운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테인크 부장님 말씀이 맞는군요. 자매님은 저를 이해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짐을 덜어줬다는 생각에 기쁨을 느꼈다. 그녀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쳐다 보다가 문득 십이사도 보조이신 닐 에이 맥스웰 장로의 말이 떠올랐다.

“우리가 좁은 항로로 안전히 항해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헤매는 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도 우리의 빛을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 노변의 모임 말씀).

나는 이러한 이해와 빛을 항상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어둠의 안개가 내 생활을 덮은 적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안개도 우리 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불확실, 곤란, 유혹, 불안정 등의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에게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인간은 사실상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만 영적인 성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탐구하고 갈망할 수 있습니다.” (브르스 시 헤이픈, 브리감 영 대학교 법학 부교수.) 사실 그렇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이것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몇년 전 일요일 아침 이에 관해 커다란 혼란을 느꼈다. 주일학교는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날은 예외였다. 나는 어머니가 아니었으므로 우울했다. 그러나 그날은 좀 달리 생각하려고 다짐하고 있었다.

모임을 갖는 중 어머니들은 모두 일어나서 선물로 작은 꽃을 받았다. 부드러운 울개 음악이 연주되는 가운데 어린 소녀들이 조용히 통로로 내려가 서있는 어머니들에게 한 사람씩 베고니아 꽃을 선물했다. 나는 예년보다 용감해지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꽃을 받고, 꽃을 나누어 주는 어린 소녀들이 내가 앉아있던 줄로 다가오자 옛날에 느꼈던 감정이 되돌아 왔다. 나는 어머니날에 만난 주일학교에 오지 말걸 하고 후회했다.

꽃이 모두 나누어지자 어머니들은 앉았다. 그 다음에는 전과 같이 꽃 한 송이가 더 전달됐다. 다시 한 번 나는 전처럼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자, 받으세요. 자매님 것이예요.” 그리고는 그 꽃을 내 손에 억지로 쥐어 주고는 어떤 사람이 속삭였다. “자매님은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요.”

모임이 끝났다. 나는 재빨리 뒷 문으로 빠져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잘 알아 볼 수도 없는 사람들과 물건이 자꾸만 길을 막았다. 눈물이 앞을 가린 것이다. “울어선 안돼, 모범을 보여야

해.”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매님은 어머니나 마찬가지예요.” 라는 말이 귓전에 쟁쟁했다. 베고니아 꽃을 뿌리치려고 하는 나를 비웃는 소리 같았다.

이번에도 예년과 다름이 없었다. 나는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말을 생각했다. 그러나 해가 지나가도 나는 고쳐질 줄 몰랐다.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가슴이 아팠다. 자주 가졌던 의문이 다시 마음속에 밀려져 왔다. 나의 영원한 동반자와 나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며 자손에게서 기쁨을 누리도록 명령받지 않았던가? 우리는 자손을 갖지 못하도록 된 것인가? 기쁨도?

나는 교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던 나의 집으로 급히 왔다. 그러나 외로움의 그림자는 그곳에도 있었다. 내가 정성껏 봐 놓은 단 두 사람 분의 식탁을 못 본 체하려 했다. 고통을 견디기 위한 노력은 다음 날 하고 싶었다.

몇주일 후, 이웃에 새로 이사 온 어린 소년이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었더니 나를 열심히 쳐다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네 애들하고 놀고 싶어서 왔어요.”

“애들은 없어”하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나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 소년은 의아하다는 듯이 물었다. “아줌마는 엄마가 아니세요?”

그 소년이 돌아간 후 나는 마음 속으로부터 울부짖었다.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면 전 뭘니까?” 다음엔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남편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들 중에는 부모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양자를 둔 사람들도 있다. 그 양자들은 친 자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친 자식이었다. 성 신권의 인봉하는 권능에 의해 그들은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도 역시 양자를 원했다. 우리가 양자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기 위해 끊임 없이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경전에 기록된 것과 같은 무감각한 느낌을 경험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교리와 성약 9:8-9)

그러나 성신의 확증을 갈망한 우리에게 왜 무감각한 느낌을 주셨을까? 우리는 신앙을 키우고 긍정적인 응답을 얻고자 원했다. 마침내 메시지가 왔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5-6). 처음 듣는 말은 아니었지만 이 메시지가 기도의 응답으로 온 것이다.

많은 생각이 흥분된 마음속에 떠 올랐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것은 복음의 첫째 원칙이 아닌가? 모든 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신앙.

나는 이러한 느낌을 남편 히버에게 말해 주고 싶어 초조히 기다렸다. 나는 남편이 모임에서 돌아올 때까지 밤 늦게 까지도

기다리곤 했다. 그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신앙이 깊은 남편이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정에는 한없는 권능의 저장소가 있어 아내도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밤 나는 남편에게 축복을 부탁하리라.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라, 더욱 깊어진 신앙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리라.

남편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알았다. 이야기를 마친 후 그는 나를 위로하고 축복해 주었다.

주님의 영감에 의해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발견했다. 우리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내관장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인생의 가장 숭고한 목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남편은 나를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소유한다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며, 소유한다고 반드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 인도, 가르침, 향상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예언자 조셉 필딩 스미스의 말씀을 함께 읽었다. “합당한 사람이 현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축복을 못 받는 경우에도 충실히 생활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현세가 끝나고 충만한 생활이 올 때에 그에게 합당한 충만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주님은 단 하나의 합당한 영혼도 간과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구원의 교리 2:176-77)

남편이 마지막 부분을 읽고 조용히 책을 덮을 때 나는 이미 듣고 있지 않았다. 마음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그 때와 같은 감정은 느낄 수 없었다. 고요한 평화가 마치 태양과 같이 떠올라 그 따사로움이 온 누리를 비추며 어느 구석에도 검은 구름 한 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이 영원한 것이며 함께 온전히 성장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교성 84:38)는 것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의문나는 점이 또 생기겠지만 반드시 해답을 얻게 될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남편은 나에게 대답했다. “인생의 가장 숭고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요.”

언제부터인지 지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집은 이웃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과자가 먹고 싶다”는 핑계로 항상 어린이와 어른들이 찾아 왔다. 그들은 남편이 집에 있기를 바랐다. 남편은 언제나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조언을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 주었다.

예기치 않은 때 보람을 느낄 경우가 많았다. 한 번은 잡화상점에 갔을 때 점원이 내 가방에 물건을 넣어 주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참 이야기가 잘 통하는 분이예요.”

어떤 어머니는 남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 “우리 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아들은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계셔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는 어린 소년이 부엌 문가로 뛰어 왔다. 친구의 말을 듣고 함께 온 것이다. “브레들리가 그러는데 아줌마는 한 손에 하나씩 주신다니네요.”라고 나에게 말하는 동안 같이 온 친구는 과자가 들어 있는 서랍을 열고 열심히 고르고 있었다. 나는 웃음을 감추고 대답했다. “브레들리의 말이 맞아요.” 나는 그들이 과자를 고르는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 보았다. 그들은 과자를 마

치 보물인양 손에 움켜 잡고는 문 밖으로 뛰어 달아났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니 가슴 속에 기쁨이 솟아 올랐다.

조그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다.”(이머 12:27)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축복은 종종 얻기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갈 때에 결국 서로 굳은 유대를 이룩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다음 성구의 말씀처럼 될 수 있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세월은 빨랐다. 친구들의 자녀들이 선교사로 떠나고 신진 결혼을 계획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조부모가 되는 특별한 기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간혹 자녀에 대한 부질없는 생각을 할라치면 남편이 안심시키고 위로시켜 주었다.

오랜 동안 우리는 무한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축복으로 받아 왔다. 노소를 막론하고 이웃에게 봉사할 기회와 생명의 은사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 왔다. 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보아 왔다.

어머니날이 지난 직후인 어느날 나는 편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편지 한 통은 주소 불명의로 되돌아 온 것이었고, 다른 한 통은 “내 아이중의 한”사람에게서 온 편지였다. 이런 편지는 으레 히 새로운 아기를 낳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뜯어 보았다.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은 달랐다. 이것은 마치 오래 잊고있던 기도의 응답과 같았다.

“제가 어머니날에 느낀 감정을 자매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린시절에 어머니날 와드에서 어머니들에게 꽃을 나누어 주던 일을 기억합니다. 매우 특별한 일로 생각되었지요. 저는 언젠가 어머니가 되어 다른 어머니들처럼 영광스럽게 일어나 꽃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꿨어요.”

이번 어머니날은 인자하시고 연약하신 96세 되신 할머니를 생각할 때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했지요. 또 언제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인자하신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금 제게는 방긋 방긋 웃는 어린 딸아기가 있지요.

“저는 할머니, 어머니, 시어머니 외에 또 한 분을 생각했지요. 내 생활을 변화시켜주신 아름다운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매님을 생각하기만 하는 것으로 저는 더욱 인정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가 필요할 때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나서 편지를 더 읽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짐, 캐런, 베키, 폴, 마크, 민디, 웬더와 그밖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특권을 생각했다.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중으로 하여금 당신의 손에 들리운 도구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눅 1:38)

나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계속 읽었다.

“저는 자매님을 깊이 사랑해요. 주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여 늘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답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축복을 전해주시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에게는 자매님이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요.”

캐시 드립. *

아메드 지 켈 자매는 주부로서 교회 본부 청년회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바운티풀 유타 센트럴 스테이크의 바운티풀 29 와드에 살고 있다.

금식과 기도

스펜서 제이 콘디

영혼으로부터 죄의 때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사 1:18)

우리의 더러워진 영이 순결하게 회복되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내적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주님의 확증을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다음과 같은 말일에 주어진 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기대하신다.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나 회개하여 주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용서받으리라.” (교리와 성약 1:31-32)

주님은 우리의 영육이 죄에 물들지 않기를 기대하신다. 육신의 부모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영혼을 더럽히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셨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교전 10:13)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힘보다 크지 않으리라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때 근심과 낙담에 빠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언자 모로나이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은 현명한 목적이 있어 주어진 것이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흠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 (이더서 12:27)

아들 엘마는 주님의 도움으로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었다.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 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였더니,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엘마서 36:17-20)

우리가 경전대로 주님의 권고를 지켜야 마른다면 용서의 기쁨과 빛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니삼 9:20)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엘마와 같이 주님께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회개의 네 단계는 아

래와 같다. (1) 죄를 인정함 (2) 애통함 (3) 죄에 대해 보상을 함 (4) 마음을 돌이켜 의로움을 행함.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해야 하며, 심한 범죄인 경우에는 감독에게 고백해야 한다. 불행히도 많은 청소년들은(성인도 마찬가지이지만)엘마와 같이 회개하여 빛과 순수함을 느끼는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은 “어떻게 내가 다시 깨끗함을 느낄 수 있을까? 내 영혼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해 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정직한 기도를 계속한다. 엘마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기도했다. 이노스는 주님께 온 하루 동안 기도하여 그의 죄가, 사하여 졌다는 주님의 확증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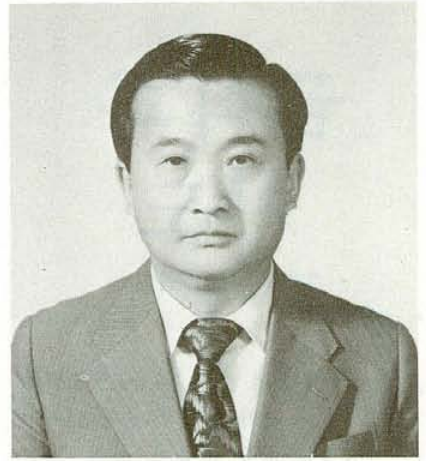
기도 시간의 길이가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을 받는 쌍방향적인 대화 과정이다. 혹자는 고정된 기도문을 암송하는 종교를 비웃는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때로는 똑같이 공허하고 맹목적인 기도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참으로 듣고 있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대화하고 있다는 내적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2. 금식한다. 우리가 종종 말로만 기도하는 것과 참으로 기도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도 드물다. 영혼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는 오랜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이 주님이 보시기에 성결케 되어 아들 엘마와 같이 온전히 되어 넘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

가정의 중요성

김 창 선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



우 리들이 지상에 와서 생활하는 데 발판이 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처나 자식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 가없는 처지를 경고하는 것이며, 가정이 필수 불가결의 처소임을 알려 주는 말씀입니다.

매년 범죄의 통계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범죄는 인구 증가율보다 7% 정도 앞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범죄의 질도 점점 극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정의 결속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국가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 생활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려면 한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가족 단위의 기초는 사랑이며,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자녀는 사랑과 협조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기 힘들다.

니파이서서 2장 25절에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쾌락은 대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일 뿐 아니

라 자기 중심적이며 육적인 경험에 불과합니다.

기쁨은 보다 높은 차원의 것으로, 그 원천은 사랑이며, 이것은 타인에 대한 봉사, 가족 또는 자녀와의 경험 등에서 비롯되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비이기적인 행위에서 얻어 집니다. 이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집단도 “물론”처럼 가정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재산이나 명예보다 가정에 있습니다. 즉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 없다”라고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늘 나라의 행복의 일부를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머리 속에 그려 볼 때, 그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가정의 연속으로 그려 집니다.

가족 각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서 비롯되는 축복을 알게 해 주는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각자는 그들이, 가정을 가짐으로써 얻게 되는 위안과 권리에 대하여 보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며, 이를 가족 기도나, 가정의 밤을 통하여 감사를 표해야 하고, 가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진전한 가정을 이룩하고 유지해 나가려면 우선 우리는 전부 교회에 굳건한 기초를 두어야 하겠습니다. *

